불자 세상보기

진정한 올림픽 정신, '인류애'



선업 스님
몸 행복치유 센터 원장

리우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4년 뒤의 도쿄 대회를 기약하며 마무리되었다. 전 세계 206개국, 1만903명이 출전해 자국의 명예를 위해 열전을 펼쳤던 이번 올림픽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새로운 세상(New World)'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지를 선수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박상영 선수의 경우이다. 펜싱 종목 에페 결승에서 2라운드가 끝날 때 9-13으로 뒤져 패색이 짙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자기신뢰의 주문을 자기 자신에게 보냈다. 그리고 10-14에서 연속 5점을 획득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일궈냈다.

박상영 선수를 보면서 경전 속의 인물인 주리반특 생각이 났다.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둔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던 그는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반복한 뒤 결국 깨달음을 얻어 주위에 놀라움을 선사한 인물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정진하고 정진하면 그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실로 돌아온다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선수를 부축하는 '놀라운 동료애'를 보여준 선수들이다. 리듬체조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조지아 살로메 파자바가 예선 종료 후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방송에 잡혔다. 이 장면이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선수들이 그를 돕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 110미터 허들 예선에서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격려했던 같은 조의 헝가리 선수, 여자 800미터 예선에서 넘어진 동료를 부축해 들어온 선수, 더불어 휠체어까지 부축하며 진정한 동료애의 정신을 보여준 선수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다.

경전에 보면 '상불경보살'이야기가 나온다. 상대방의 처지와 상관없이 상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찬탄한, 연민을 실천한 상징적 인물이다. 이렇듯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는 행동은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세상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한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올림픽 명장면 세 번째는 함께 기뻐하는 선수들의 모습이다. 양궁 준결승에서 패배한 기보배 선수가 승자인 장혜진 선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은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수희(隨喜)'의 정신을 보여준 멋진 장면이었다.

[유마경]의 〈관중생품〉에 '진정한 기뻐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고 진정으로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 그것은 보살의 사무량심 중에서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회한을 가지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온다. 결국 이 순간 온전히 상대방의 기쁨과 함께 할 때 맑고 밝은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올림픽의 장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폐회식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서로 팔짱을 끼고 돌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권리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는 올림픽 상징 속의 연결된 다섯 개의 고리처럼, 언어, 인종 등의 차별적 요소를 뛰어 넘어 본래 연결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너무 기뻤다.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누며 메달의 유무와 색깔에 상관없이 얼싸 안고 환호하는 장면은 우리가 열어야 할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은 '한 송이 꽃'으로 서로를 자애로써 존중하고 연민으로 공감하며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 되어 평등하게 사는 열린 세상일 것이다. 그런 세상을 몸소 보여준 이번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보낸다.

특별 기고

평화유지와 종교의 역할을 생각하며



여정 강건욱
레바논 평화유지단 법사

자랑스러운 한국의 동명부대가 '레바논에 평화를, 조국에는 영광을'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레바논은 지리상으로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현재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나라가 불안정하고, 이스라엘과는 레바논 내의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무장단체들로 인해 갈등과 긴장이 상존한다.

이렇게 종교가 다른 국가 간의 반복되는 테러와 전쟁 속에서, 과연 종교와 평화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그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 중동지역의 모든 갈등과 불화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로 보여 지지만, 그 근본원인이 종교 간의 문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혼재되어 있는 레바논과, 유대교의 이스라엘간의 모든 갈등의 원인 역시 결국 '종교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레바논이 위치한 중동지역은 세계 그 어느 곳 보다 종교에 민감한 곳이다. 레바논을 '이슬람 국가'라고 정의 할 수는 없으나 주변국을 비롯한 국가의 구성은 이슬람 사회가 다수인 이슬람 권역에 속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슬람 세계의 사회, 정치적인 모습들 중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종교를 삶의 원칙으로 삼는 이슬람식의 사고방식에 따라 이해해야한다. 이슬람이 단순한 신앙체계만이 아니라 종교와 세속 모두를 포괄하는 '신앙과 실천의 체계'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이슬람 사회의 제도, 관습, 종교, 문화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고정적 시각과 편견의 잣대를 버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종교는 평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종교는 평화적이어야 옳다. 모든 종교의 목표가 반드시 평화는 아니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내적인, 외적인 평화 그리고 개별 종교가 갖는 열반과 구원이라는 핵심가치 역시 평화에 기반 한다. 종교와 폭력은 병존하거나 공존 할 수 없다. 따라서 테러와 전쟁과 같은 폭력의 행위는 어떤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교적이고 평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종교 던지 그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구현하는데 있어 평화의 방법이 아닌 전쟁과 테러와 같은 폭력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종교의 진리는 보여 질 수 없으며, 또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는 이러한 폭력에 맞서 '평화'라는 인류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 또한 종교 본연의 진리 추구와 가치 실현을 위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이곳 레바논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전쟁들이 진정 종교를 위한 일인지, 그리고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의 허울을 쓰고 자행되는 개인과 국가, 또는 민족의 이기적 이익을 위한 테러와 전쟁을 종교의 진정한 이름인 '평화'로 상쇄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종교의 길이다.

이곳 UNIFIL(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는 38개국의 군인들이 파병되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종교인이 공존하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다. 모든 인간이 종교를 믿거나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주요한 가치를 위해 임무수행 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군인들은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각 사회의 정치, 종교, 문화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시각과,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적인 시각으로 이른바 '평화를 유지하는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한다면 분명 레바논과 세계 평화에 작은 기여를 하는 것임을 믿으며 글을 맺는다.

社說

국민은 '호국의승의날' 제정 원한다

조계종이 8월 17일 '호국의승의날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제정 활동에 나섰다. 조계종은 2014년 6월 25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호국의승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싸늘하다. 반대의 논지는 의승군 기념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과 유사 기념일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지는 맞지 않다. 이미 호국불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불교계에서 진행한 기념일 서명운동에도 7만여 명이 동참했다. 기념일 제정으로는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유사기념일로 꼽히는 의병과 달리 의승군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종교계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한 경우다.

그동안 의승군의 활약에 대해 역사적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헌과 함께 금산전투에 참여했던 영규대사와 800여 의승군들은 승려라는 이유로 700의총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조선 조정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 승군의 공훈을 인정해 대흥사 등에서 국가제향을 지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향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절됐다. 이후 국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저조한 사이 의승에 대한 교육도 약화되고 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 6종 중 의승장의 이름을 본문에 소개한 경우는 단 1종(비상교육 교과서)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불교의 특성을 이야기하라면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이 '호국불교'의 전통이다. 호국불교로 대변되는 호국사상은 불교를 넘어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녹아있다. 호국의승들을 기리는 일은 불교만의 일이 아닌 국가차원의 중차대한 사업이다.

김영란법 핵심은 '不正'

오는 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조계종이 8월 22일 종교계 최초로 관련 특강을 열고, 종교인들이 유의해야할 내용을 톺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 핵심은 스님들이 신도의 고충을 공익목적에서 대신 전달하는 민원활동을 벌일 때 김영란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재나 인권 분야 등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많아 이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란법은 청탁과 관련된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때 처벌하는 현행법과 달리 금품 없는 부정청탁 역시 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한 자에게 부정함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신도들 역시 스님에게 한 자신의 부탁이 부정청탁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탁이라면 서로 조심하고, 필요하다면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탁해야 법의 저촉을 피할 수 있다.

김영란법의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법의 방점은 바로 '부정(不正)', 즉 '바르지 않음'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이해한다.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부정은 곧 '악업'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라도 암암리에 이뤄졌던 그릇된 부탁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